

U.S. Daily Briefing

문의 : 워싱턴무역관(seogil.chang@kotra.or.kr)

2023.10.12.(목) 제23-112호

◆ [Focus] 미·유럽연합(EU) 간 청정철강 규제 논의 동향

◆ [What's News]

- (의회) 스칼리스 하원의장 유력 후보 경제·통상 정책 성향
- (세제) OECD, 국제 세제개편 필러1 세부 이행 규정 공개
- (공급망)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위해 14개국 광물파트너십 회의 개최
- (경제) 9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에 따른 연준 금리 전망

◆ [Top Headlines] 주요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

FOCUS

[철강] 미·유럽연합(EU) 간 청정철강 규제 논의 동향

1. 배경

□ 미국과 EU 정상회담 개최 예정(10.20)

- 백악관은 EU 집행위원장과 평의회 의장을 공식 초청(9.28)
 - 올해 3월 1차 정상회담에 이어,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, 샤를 미셸 의장과 미-EU 간 주요 의제를 논의할 전망
- 철강 시장 내 공급과잉 및 고탄소 집약도 문제 해결 방안 논의 중
 - 1차 회담에서 양측은 미국의 232조 철강·알루미늄 관세와 그에 따른 EU의 보복 관세를 상호 철회하기를 희망
 -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상황에 대비해, EU는 미국과 철강 분쟁 재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 타결 추진

2. 주요 내용

□ 미-EU 간 청정철강 규제 협력 진행 동향

- 미·EU는 '21.10.31 철강·알루미늄 합의 타결
 - 미국이 EU에 330만 톤의 저울할당관세(TRQ)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상호 부과한 철강 관세를 임시 철회했으며, '23.10.31 만기로 합의
 - * 만기 전까지 '지속 가능한 철강·알루미늄에 관한 국제 협정'을 완성하기로도 합의
- 만기일에 근접하며 협상 속도를 높였으나 견해차로 기한 연장 전망
 - 양측 관계자들은 글로벌 철강 협약(GSA) 합의에 따른 관세 철폐를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달성하고자 실무자 협상에 노력(10.3)
 - EU 측은 양측이 232조 관세에 대한 현행 임시 합의를 '24.1.1까지 연장할 것으로 전달(10.9)

□ 양측 임시 협정(10.3) 내 동지 국가를 주축으로 한 GSA 구상 포함

- * 폴리τικο는 13페이지 분량의 임시 협정문을 입수해 보도(10.11)
- 미·EU산을 제외한 철강·알루미늄에 각각 25%, 10% 관세 부과
 - 철강, 청정 기술 등 핵심 부문에 보조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의 수입품에 일괄 관세 부과
 - 같은 구상을 공유하고 기준에 충족하는 회원국으로 금속 클럽(metal club)을 구성해 관세 및 친환경 정책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
- 금속 클럽에 가입하기 위한 6가지 기준 조건
 - 폴리τικο가 밝힌 한 가지 기준은 “금속 관련 원자재, 중간 투입물 및 기타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.”
 - * “that an economy refrain from imposing export restrictions on relevant raw materials, intermediate inputs, and other related products”
 - 중국이 지난 8월 실시한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규제를 엄두에 두고 중국의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포함된 기준으로 고려
 - * 폴리τικο는 인도네시아가 스테인리스강의 부품인 니켈을 수출 금지한 사실에도 주목

3. 현지 반응

□ 촉박한 시한에 의견 조율 차질

- 합의를 위한 전반적인 의견은 일치하는 반면, 달성 방안에 대한 견해차 뚜렷
 - EU 측은 미국이 주장하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하는 규제보다, WTO가 인정하는 상계관세 방식 규제를 선호
 - * EU는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조사에 이어, 철강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검토 중
 - 공개된 임시 협정을 기준으로 합의할 경우, 다수의 철강 생산국이 미국과 EU를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고려(폴리티코)
 - 반면, 타이 USTR 대표는 미국이 설계한 철강 합의는 WTO의 규칙을 위반*하지 않는다는 뜻을 고수(인사이드 트레이드)
 - * WTO는 회원국이 국가안보를 기준으로 실행한 정책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견해
-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EU 내 우려도 존재
 - 일부 EU 관계자는 폰테어라이엔 위원장이 교섭권을 부여받은 이후 철강 협의에 EU 회원국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
 - * 유럽철강협회 사무총장은 협상에 대해 동의해야 할 내용이 늦게 통보되고 있음을 언급
 - 내부 의견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, 기한일까지 협상을 마치기 위해 미국 측 의사가 다수 반영된 합의안이 최종 채택될 가능성에 우려

□ 청정철강 규제 이외 발표될 안건에도 주목

-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보조금 혜택 문제를 타개할 중요 광물 협정 타결 가능성에도 현지 언론 관심 집중
- EU는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게, 미국과의 FTA 체결 대상이 아닌 EU 기업이 제조한 전기 자동차 배터리도 IRA에 따라 소비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이준성
▪ 자료원	폴리티코(10.11), 인사이드 트레이드(10.10) 및 워싱턴무역관 보유자료

□ **(의회) 스칼리스 하원의장 유력 후보 경제·통상 정책 성향**

- 공화당, 10.11(화) 스칼리스(Steve Scalise)을 하원의장 후보 추대 결정
 -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일부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가 예상되나, 섣다운, 이스라엘 사태 등 위기 상황 속 의회 정상화 여론 비등
- 언론 등은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스칼리스 의원의 과거 의회 표결 기록 등을 바탕으로 경제·통상 정책 성향 분석

< 스칼리스 하원의장 후보 경제·통상 정책 성향 >

구분	성향	최근 주요 표결 찬반
정부 재정	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에 반대하는 건전 재정 옹호 (작은 정부,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 지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Fiscal Responsibility Act of 2023(찬) · Consumer Fuel Price Gouging Prevention Act(반) ·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(반) ·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(반)
에너지	화석 연료 개발 확대 주장, 재생에너지 투자 반대, 미국 에너지 독립론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Lower Energy Costs Act(찬) · Suspending Energy Imports from Russia Act(찬) · Expanding Access to Sustainable Energy Act(반)
환경	탄소배출 규제 등 적극 반대, 과도한 환경정책의 경제 부작용 주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Climate Action Now Act(반) · Recovering America's Wildlife Act(반) · Arctic Cultural and Coastal Plain Protection Act(반)
통상	전통 자유무역 옹호 입법부 무역협정 승인 권한 주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USMCA Implementation Act(찬) · North American Energy Security and Infrastructure Act(찬) · Free Trade Agreement with Korea 2011(찬) · Export-Import Bank Reauthorization Act(반)

[자료] 블룸버그 / www.justfacts.votesmart.org

-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이정민
- 자료원 | 블룸버그(10.12), Vote Smart(10.12)

□ **(세제) OECD, 국제 세제개편 필러1 세부 이행 규정 공개**

- (개요)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는 미국 거대 테크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100대 기업에 대한 글로벌 과세를 위한 조약 초안을 공개(10.11)
 - 디지털 경제에 걸맞은 국제 법인세 정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, 올해 말까지 130개 이상 국가의 조인을 목표
 - 이번 개정안은 매출 200억 유로 이상, 이익률 10% 이상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, 판매가 발생한 국가에서 해당 수익에 25% 과세 가능

○ (전망) 미국 공화당의 반대로 연내 조약 통과 전망 불투명

- 본 조약의 발효를 위해서는 과세 대상이 되는 다국적 기업의 60%를 차지하는 최소 30개국의 가입이 필수 상황
- 구글, 메타, 아마존 등 미국 다국적 기업이 주요 과세 대상이 되는데, 미국 의회의 결정이 이번 조약 성공의 핵심 변수가 될 예정
- 미국 재무부, 10.11(수) OECD 조약 초안에 대한 공개의견 접수 요청

▪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이정민

▪ 자료원 | 파이낸셜타임즈(10.11), OECD(10.11), 미국 재무부(10.11)

□ [공급망]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위해 14개국 광물파트너십 회의 개최

○ (개요) '23.10.10(화), 영국 런던에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(MSP) 개최

- 미국 국무부·영국 산업부 공동 주최로 △핵심 광물 공급망에 대한 책임 있는 투자와 △지속 가능한 금융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
- MSP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해 미 국무부 주도로 출범, 한·미·일·캐·독·프·영·호·핀·노·EU·스 등 14개국 참여 중(22. 6월 설립)

○ (상세)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광물 및 금속 공급망 확보에 초점

- MSP 핵심광물 4대 의제: 1)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 및 안정화, 2) 공급망에 대한 투자, 3) 광업, 가공 및 재활용 부문에서 높은 환경, 사회·거버넌스 표준 장려, 4) 핵심 광물 재활용 장려
- 특히, 리튬, 니켈, 흑연,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의 공급 및 가공 역량 강화 위해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에 대한 업데이트 정보 공유
- * 채굴 및 추출, 광물 처리, 재활용 분야 등 최대 20개 프로젝트 개발 중
- 폴리티코는 이번 회의의 초점으로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(strategically important technologies) 공급망을 지목, 경제와 미래 일자리 모두를 위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도

▪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김준희

▪ 자료원 | 폴리티코(10.10), 국무부 MSP (홈페이지), 산업부(10.11)

□ [경제] 9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에 따른 연준 금리 전망

○ (개요) 노동통계국(BLS), 9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 발표(10.12)

- 9월 CPI는 전월 대비 0.4% 상승하여 전망치(0.3%)를 소폭 상회, 전년동월대비 3.7% 상승, 시장전망치(3.6%)를 소폭 상회

* 6월 3.0%, 7월 3.2% 8월 3.7%

- 반면 근원물가지수는 4.1% 상승으로, 전월 4.3% 대비 증가율 둔화되는 등 6개월 연속 하락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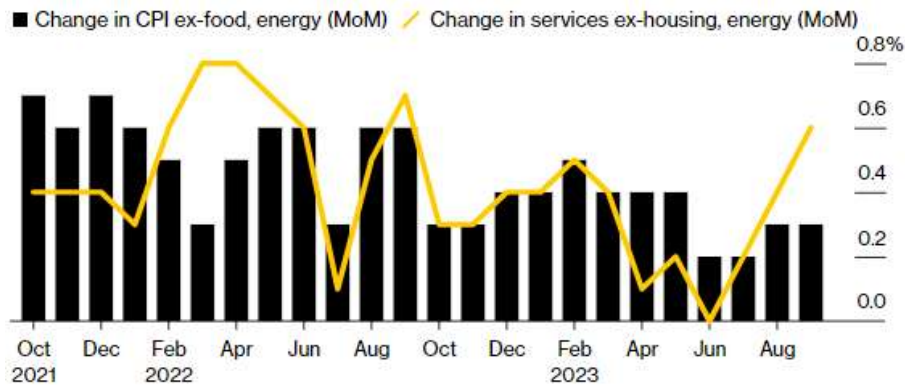
○ (상세) 인플레이션 압박 완화로 기준금리 유지 가능성 증대

- 美 국채 금리가 상승하며 11월 FOMC 금리 동결 전망(10.12 오후)

* 2년채 5bp, 10년채 11bp 증가

- 반면 블룸버그 통신은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하였으며, 중동 긴장 고조로 인한 공급측 에너지 가격 상승은 연준의 금리인상 압박을 가중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

<참고> 근원 CPI 및 슈퍼코어 소비자물가 지수 변화>



* 주: 에너지·주거 비용을 제외한 슈퍼코어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들어 최대폭 상승
[자료: 美 노동통계국, 블룸버그 인용]

-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■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마민서 |
| ■ 자료원 | 미국 노동통계국(10.12), 블룸버그(10.12, 10.12) |

Top Headlines

언론사	주요 보도내역
The Wall Street Journal	<p>Inflation Data Won't Let Fed Declare Victory (연준의 승리 선언을 가로막는 인플레이션 데이터)</p> <p>9월 CPI, 3.7%를 기록. 작년 6월의 9.1%에서 많이 하락하였으나, 여전히 연준 목표치인 2%를 상회. 전문가들, 연준의 시도에 진전은 있으나 완수한 것은 아니라 평가</p>
The Washington Post	<p>Scalise struggles to build support for speakership in Republican Meeting (스칼리스, 의장 선출에 필요한 지지층 규합에 난항)</p> <p>목요일 스칼리스 하원의장 후보자는 공화당 하원 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스칼리스를 포함 그 누구도 당선에 필요한 217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</p>
The New York Times	<p>Inflation Slowdown Remains Bumpy, Consumer Price Data Shows (소비자물가지수 발표... 험난해보이는 인플레이션 완화)</p> <p>9월 CPI 발표. 2022년보다는 완화된 속도로 기록 중이나 기대만큼 완화되지 않아 연준은 계속 주시 중. 그래도 코어 CPI(4.1%)는 전문가 예측과 일치</p>
CNN	<p>Israel strikes Gaza, vows to crush Hamas (“하마스 격멸 목표” 이스라엘, 가자 지구 공격)</p> <p>이스라엘은 현재 가자 지구에 식료품, 전기, 연료, 물 등의 공급을 중단한 상황.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는 ISIS와 같은 말로를 겪게되리라 선언</p>
USA Today	<p>Trump blames Netanyahu for Hamas attacks, calls Hezbollah leaders 'very smart' (트럼프, 중동 사태에 대해 네타냐후 비판... 헤즈볼라에 긍정적 평가)</p> <p>트럼프, 플로리다에서 이스라엘의 탐지 실패를 언급하며 헤즈볼라 등이 기민하게 활동했다 발언. 디 샌티스 등은 동맹국의 전시에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비판</p>

* 미국 동부시간 10월 12일 15시 기준

Notice

주요 경제·통상 일정

*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 공개됩니다

□ **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**

◆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, **경제통상리포트** (과거 리포트 : [☞헤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☜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3-29	美 의회 임시 세출 결의 처리 경과 및 향후 섣다운 전망	2023.10월
US23-28	미국 정부의 대중 투자규제 동향 및 시사점	2023.10월
US23-27	미국 연방정부 섣다운 가시화 속 현지 반응 분석	2023.09월
US23-26	신규 회계연도 임박, 美 의회 예산안 입법 동향	2023.09월
US23-25	2022년 주요국 해외투자 동향(UNCTAD 보고서)	2023.09월
US23-24	바이든 행정부의 청정 수소 전략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3.08월
US23-23	해외투자 심사 관련 상원 법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3.07월
US23-22	희귀광물 갈륨·게르마늄 공급망 분석	2023.07월

◆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, **기획조사** (과거 보고서 : [☞헤드림 심층보고서☜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GMR23-026	미국 태양광 정책 시장, 우리 기회와 도전 과제	2023.09월
US22-기 획7	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	2023.01월
US22-기 획6	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·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	2022.12월
US22-기 획5	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	2022.12월

◆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, **코트라 인터뷰 시리즈** (과거 인터뷰 : [☞유튜브 KOTRA TV☜](#))

인터뷰번호	제목	바로가기
코인시-14 (2023.6.30)	 <p>전미자동차연구센터(CAR) '앨런 아미사' 대표 인터뷰 자동차 업계를 둘러싼 글로벌 지정학 경쟁과 향후 전망과 미래</p>	
코인시-13 (2023.6.26)	 <p>전 미국 국방부 안보 차관보 '켄달 스투리버' 인터뷰 경제 안보 관점에서 본 글로벌 공급망 재편!</p>	